



## 3차 과제

3월 3주차

### 시가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월명사, '제 망매가(祭亡妹歌)'

생사(生死) 길은  
예 있으며 머뭇거리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 이르고 어찌 갑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에 저에 떨어질 잎처럼

㉠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 모르온저  
아아, 미타찰(彌陀刹)에서 만날 나  
도(道) 닦아 기다리겠노라.

#### (나) 박목월, '이별가'

뭐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니 뭐락카노, 바람에 불려서  
이승 아니른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뭐락카노 뭐락카노

썩어서 ㉡ 동아뱃줄은 삭아 내리는데

하직을 말자 하직 말자

인연은 ㉢ 갈밭을 건너는 바람

뭐락카노 뭐락카노 뭐락카노

니 흰옷자라기만 펄럭거리고……

오냐. 오냐. 오냐.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이승 아니른 저승에서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뭐락카노, 저 편 강기슭에서

니 음성은 바람에 불려서

오냐. 오냐. 오냐.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다) 황동규, '즐거운 편지'

<Ⅰ>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 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  
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 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 보리라.

<Ⅱ>

진실로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내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잇닿은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땀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  
다. 다만 그 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 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또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

[문제 1] (가)~(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시적 화자의 태도는? 235)

- ① 지순한 사랑을 통해 삶의 허무를 벗어나고자 한다.
- ② 스스로를 고통 속에 던져서 자신을 정화하고자 한다.
- ③ 헤어짐의 상황을 받아들여 기다림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 ④ 삶과 죽음의 경계를 벗어나 영원으로 희귀하고자 한다.
- ⑤ 현실과 거리를 둬서 주어진 운명을 초월하고자 한다.

[문제 2] ㉠~㉢ 중, (가)의 ㉡'한 가지'와 가장 유사한 심상을 환기하는 것은? 236)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제 3] (나)의 표현상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37)

- ① 대립적인 시어를 병치함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극복하고 있다.
- ② 말끝을 감춤으로써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③ 시어를 점층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고조되는 감정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일상적 대화의 말투를 구사함으로써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다.
- ⑤ 사투리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현실감과 운율의 효과를 동시에 얻고 있다.



시가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정서, '정과정'

내 님을 그리수와 우니다니  
山(산) 접동새 난 이슥하요이다.  
아니시며 거츰친 돌 아으  
殘月 曉星(잔월 효성)이 아루시리이다.  
녁시라도 님은 혼디 녀져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過(과)도 허물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물hit마리신더\*  
슬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허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물hit마리신더 : 못 사람들의 참소입니다.

\* 슬웃븐더 : 슬픕니다.

(나) 허난설헌, '규원가'

三三五五(삼삼오오) 冶遊園(야유원)의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곳 피고 날 저물 제 定處(정처) 업시 나가 잇어  
白馬金鞭(백마 금편)으로 어디 어디 머므는고.  
○遠近(원근)을 모르거니 消息(소식)이야 더욱 알랴.  
因緣(인연)을 굿쳐신들 싱각이야 업슬소냐.  
(                      ⊙                      )  
열두 새 김도 길샤 설흔 날 支離(지리)하다.  
玉窓(옥창)의 심근 梅花(매화) 몇 번이나 피여진고.  
겨을 밤 차고 찬 제 자최눈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구즌 비는 므스 일고.  
三春花柳(삼춘 화류) 好時節(호시절)의 景物(경물)이 시름업다.  
7을 둘 방에 들고 蟋蟀(실솔)이 床(상)의 올 제  
긴 한 숨 디는 눈물 속절업시 행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다) 임제, '무어별'

열다섯 아리따운 아가씨	十五越溪女
남 부끄러워 말 못하고 헤어졌고야.	羞人無語別
돌아와 중문을 닫고서는	歸來掩重門
배꽃 사이 <u>달</u> 을 보며 눈물을 흘리네.	泣向梨花月

[문제 1] (가)~(다)의 화자에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0)

- ① (가)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하소연하고 있다.
- ② (나)는 임의 태도를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고 있다.
- ③ (다)는 이별 후의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낸다.
- ④ (가),(나)는 현재의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⑤ (나),(다)는 자연적 배경이나 사물이 화자의 처지나 심리에 간접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문제 2] (가)의 '잔월'과 (다)의 '달'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1)

- ① (가)의 '잔월'은 화자가 선망하는 대상이고, (다)의 '달'은 원망의 대상이다.
- ② (가)의 '잔월'은 광명을 상징하는 '달'이고, (다)의 '달'은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는 자연물이다.
- ③ (가)의 '잔월'과 (다)의 '달'은 모두 화자가 그리워하는 임의 이미지를 떠올리게 하는 존재이다.
- ④ (가)의 '잔월'은 화자와 임을 연결해 줄 매개물이고, (다)의 '달'은 화자의 슬픔을 위로해 주는 존재이다.
- ⑤ (가)의 '잔월'은 화자의 결백을 증명해 줄 절대적 존재이고, (다)의 '달'은 화자의 정서를 더욱 심화시키는 존재이다.

[문제 3] (가)를 상소문으로 재구성했을 때, 새로 첨가된 내용은? 242)

…… 신이 었드려 조용히 생각해보니, 임금께서 신하에 대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는 백성을 위하여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신이 본디 몽매(蒙昧)하지만, 군신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감히 말씀 드립니다. 신은 사직을 떠난 그날부터 오늘까지 매일 ㉠임금을 그리워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밤엔 접동새 소리가 더욱 구슬프게 들립니다. ㉡비록 신은 임금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다시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누가 신을 모함하였는지 모르지만, ㉢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새벽달과 별은 알 것입니다. ㉣신을 귀양 보내실 때에 곧 다시 불러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기에 기다림에 지쳐 글을 올립니다. ㉤임금께서 아직 신을 잊지 않고 계실 터이니 다시 사랑해 주십시오.

① ㉠

② ㉡

③ ㉢

④ ㉣

⑤ ㉤

[문제 4] 표현 및 발상이 ㉦과 가장 유사한 것은? 243)

① 낮이면 이영 엮고 밤의논 새끼 쏘아, 찌 맞춰 집 이으니 큰 근심 더럿도다.

-정학유, '농가월령가(農家月令歌)'-

② ㄱ 올히 부족거든 봄이라 有餘(유여)하며, 주머니 뷔였거든 瓶(병)이라 담겨시랴.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③ 東洞山에 돌이 나고 北極極극의 별이 뵈니, 님이신가 반기니, 눈물이 절로 난다.

-정철, '사미인곡(思美人曲)'-

④ 簞瓢陋巷(단표 누항)에 훗튼 혜음 아니 ㅎ니. 아모타, 백년행락이 이만흔들 엇지 ㅎ리.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⑤ 불휘 기픈 남곤 브르매 아니 뵈씨, 꽃 도쿄 여름 ㅎ느니.

시미 기픈 므른 ㄱ므래 아니 그출씨, 내히 이러 바르래 가느니.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문제 5] ( ㉧ )에 들어갈 시구는? 244)

① 누릿 가운데 나곤 몸하 ㅎ올로 녀서

②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마르려믄

③ 님다히 消少息식이 더욱 아득 ㅎ더이고

④ 배꽃 같던 요내 얼굴 호박꽃이 다 되었네

⑤ 人間(인간)을 찌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었다

서사문학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 부분의 줄거리] 장마가 계속되고 있었다. 전쟁 중에 우리 집에 피난와 있던 외할머니는 국군인 외삼촌이 전사하였다는 통지를 받는다. 외할머니는 건지산에 있는 빨치산들에게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 친할머니는 노발대발한다. 삼촌이 빨치산이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의 꼬임에 빠진 나는 삼촌이 집에 다녀간 사실을 말하게 되고, 아버지는 큰 고초를 치른다. 이로 인해 나는 친할머니의 분노를 사 큰방 출입이 금지된다. 친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에 따라 삼촌이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잔치 준비를 한다. 그러나 그날이 되어도 삼촌은 오지 않는다. 그 때 난데없이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친할머니는 졸도를 한다. 구렁이를 삼촌의 현신(現身)으로 생각한 것이다. 이 때 외할머니는 친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면서 구렁이에게 다가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

“섞이! 섞어!”

외할머니의 선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 곁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 성혀서 먼 길을 편안히 가소. 뒷일은 아모 염려 말고 그저 편안히 가소. 증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히 돌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친구네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이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나?”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론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간혹 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는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 방울이 훌쩍한 불고랑을 타고 베갯잇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 전에 할머니하고 한다래기\* 단단히 별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

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짹 메었다.

“사분\*도 별시런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 “야한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혈 일을 사분이 대신 맡었구랴. 그 험헌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마나 수고시켰으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뭍이나 잘 추시리기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 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없이 잘 가거나 했는지 몰라라우.”

“염려 마시랑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편안히 거처하시나 사분 댁 터주 노릇을 툅툅히 하고 있을 것어요.”

( ㉠ )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도 대변에 기운이 까라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완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방을 물러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 ㉡ ) 의식이 없는 중에도 땀 손갈 흘려 넣은 마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 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이 연속이었다. ( ㉢ )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 내는 고역을 치러 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 버린 촛불이 스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 ㉣ )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짝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었나 보다. ( ㉤ ) 임종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 윤홍길, '장마'

\* 한다래끼 : 큰 싸움

\* 사분 : 사부인(査夫人)의 속음. 사돈댁

\* 아한티서 : 애한테서

[문제 1] 윗글의 내용에서 갈등이 해소되는 장면을 서술한 것은 ? 245)

- ① 할머니가 삼촌을 기다렸다.
- ②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였다.
- ③ 고모가 할머니에게 경과를 이야기하였다.
- ④ 외할머니가 큰방으로 건너왔다.
- 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문제 2] ㉣ 처럼 <보기>의 대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246)

<보 기>
가영 :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했어야 할 일인데…….
영철 : _____
가영 : 정말 고마워.

- ①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몸이나 잘 돌봐.
- ② 천만다행이야. 그러니 준비를 철저히 해야하지.
- ③ 쓸데없는 소리! 이제부터는 네 일은 내가 알아서 해.
- ④ 사실 그 일을 하느라고 고생 좀 했어. 하지만 이제 괜찮아.
- ⑤ 글썄. 어쩌다가 일이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 앞으로가 걱정이야.



[문제 3] 이 작품의 결말 부분인 ㉠에 대한 반응들이다. 윗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7)

- ① 한 줄 띄어져 있어 여운을 남기는군.
- ② 작품의 제목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
- ③ 장마 기간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의미해.
- ④ 새로운 갈등의 씨앗이 싹트고 있음을 함축하고 있어.
- ⑤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질 만큼 힘든 나날이었음을 암시해.

[문제 4] 윗글을 서술했을 때의 심경을 잘 드러내기 위해 '이제 와 돌이켜 생각해 보니'라는 구절을 넣으려고 한다. ㉠ ~ ㉤ 중, 가장 적절한 곳은? 248)

- ① ㉠                      ② ㉡                      ③ ㉢                      ④ ㉣                      ⑤ ㉤

[문제 5] '한국 문학의 세계화'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자 한다.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중심으로 이 작품에 대해 토론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49)

<보      기>

한국 문학의 세계화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문학의 특수성을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둘째, 우리 문학이 지니고 있는 보편성을 어떻게 찾아내 드러낼 것인가이다. 두 가지 문제는 상호 보완적이지만 첫 번째 문제를 먼저 해 결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 ① 이 작품에 담겨 있는 사투리 특유의 어조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 ②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물들 사이의 심리적 갈등 양상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③ 이 작품에 나타난 한국의 전통적 가족 제도 내의 인간 관계를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 ④ 이 작품에 나오는 토속적 샤머니즘에 대해 우리가 느끼는 정서를 어떻게 공감시킬 것인가?
- ⑤ 이 작품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6.25 당시 우리 농촌 특유의 장마철 분위기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서사문학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жат은몰이) 좌우 나졸 쌍교(雙轎)를 웅위하여 부운(浮雲)같이 나오는데, 그 뒤를 바라보니, 그 때에 이 도령은 비룡(飛龍) 같은 노새 등에 뚜렷이 올라앉아 재상(在喪) 만난 사람 모양으로 훌쩍훌쩍 울며 나오는데, 동림 숲을 당도하니 춘향의 울음 소리가 귀에 언뜻 들리거늘,

“이애 방자야, 이 울음이 웬 울음 소리냐.”

“도련님은 귀도 밝소. 웬 울음 소리가 나오.”

“이 자식아 사정 없는 소리 말고 춘향이 나와 우는지 어서 좀 가 보고 오너라.”

방자 하릴없이 충충충충 갔다 나오는데, 이 놈이 도련님보다 더 설게 울며 나오는데,

“어따, 우는데 우는데.”

“이 자식아 누가 그렇게 운단 말이나.”

“누가 그렇게 울겠소. 춘향이가 나와 우는데, 도련님 오시면 둘이 들어간다고 땅을 한 길은 넘게 파 놓고, 잔디를 어찌 쥐어 뜯었든지 밥을 하면 세 끼니는 해 먹게 뜯어 놓고 우는데, 사람의 눈으로는 못 보겠습디다.”

(나) (중몰이) 도련님이 이 말 듣고, 말 아래 급히 내려 우루루루 뛰어 들어가 춘향의 목을 안고,

“춘향아, 네가 이것이 웬일이나. 네가 천연히 집에 앉아 날더러 잘 가라고 말을 하여도 장부 간장이 다 녹는데, 삼도(三道) 네거리 떡 벌어진 데서 네가 이 울음이 웬일이나.”

춘향이 기가 막혀,

“아이고 도련님 참으로 가시오그러. 못 하지 못 가지요. 나를 죽여 이 자리에 묻고 가면 갔지 살려 두고는 못 가리다. 향단아 술상 이리 가져오너라.”

술 한 잔을 부어 들고,

“옛소, 도련님. 약주 잡수. 금일송군수진취(今日送君須盡醉)\*니 술이나 한 잔 잡수시오.”

도련님이 받아들고,

“세상에 못 먹을 술이로다. 합환주는 먹으려니와 이별주라 주는 술을 내가 먹고 어이 살잔 말이나.”

춘향이 지환(指環) 벗어,

“도련님 지환 받으오. 여자의 굳은 마음 지환 빛과 같은지라, 이토(泥土)에 묻어 둔들 변할 리가 있으리까. 날 본 듯이 두고 보오.”

도련님이 받아 놓고, 대모 석경(玳瑁石鏡)을 내어 주며,

“장부의 맑은 마음 거울 빛과 같을지니 날 본 듯이 두고 보아라.”

서로 받아 품에 넣고 꼭 붙들고 떨어지지를 못하는구나.

(다) (아니리) 방자 답답하여,

“여보시오 도련님, 어쩔려고 이러시오. 점잖으신 도련님이 이별을 하실려면, ‘춘향아 잘 있거라.’ ‘도련님 잘 가시오.’ 그 단 두 마디만 해도 그 속이 천지위낭장만물(天地爲囊藏萬物)\* 속인데, 이것이 벌써 며칠이요. 바로 명천에 떠나셔도 가시는 날은 평생 이러실 것이니 고만 가십시오. 향단아 너의 아가씨 좀 붙들여라.”

도련님은 방자에게 붙들리어 말 위에 올라앉으며,

(라) (중몰이) “춘향아 나는 간다. 너는 부디 우지 말고 노모 하에 잘 있거라.”

춘향이도 일어나서 한 손으로 말고삐를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도련님 등자 디딘 다리를 잡고,

“아이고 여보 도련님. 한양이 멀다 말고 소식이나 종종 전하여 주오.”

[ ㉠ ]

(마) (жат은물) 저 방자 미워라고 이라 툇 처 말을 몰아 따 랑 따랑 따랑 따랑 따랑 혈혈 달려가니, 그 때에 춘향이는 따라갈 수도 없고 높은 데 올라서서 이마 위에 손을 얹고 도련님 가는 데만 물끄러미 바라보니, 가는 대로 작게 된다. 이만큼 보이다가 저만큼 보이다가, 달만큼 별만큼 나비만큼 불티만큼 망중 고개 아주 깜박 넘어가니 우리 도련님 그림자도 못 보겠구나.

- 작자 미상, '춘향가'

- \* 금일송군수진취(今日送君須盡醉): 오늘 그대를 보내니 실컷 취해야지.
- \* 천지위낭장만물(天地爲囊藏萬物): 천지는 만물을 담는 주머니이다.

[문제 1] (가)의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50)

- ① 춘향의 처지를 과장하여 표현하고 있다.
- ② 상황에 대한 방자의 객관적인 판단이다.
- ③ 청자인 이 도령에게 전달하는 정보이다.
- ④ 청자인 이 도령을 격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⑤ 청자인 이 도령에게 춘향의 말을 중개하는 역할도 한다.

[문제 2] (나)에서 이 도령과 춘향이 반지와 거울을 주고받는 부분을 중심으로 토의를 하고자 한다. <보기>의 견해에 동의하는 맥락에서 벗어난 것은? 251)

<보 기>  
“나는 반지와 거울이 두 사람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어.”

- ① “그래, 헤어져 있어도 늘 자기 생각만 해 달라는 염원의 표현인 거야.”
- ②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 반지와 거울은 이별의 아픔을 달래주는 역할도 하겠지?”
- ③ “옛날에는 인정을 중시했으니까 관습에 따라 이별의 선물을 주고받은 정도일 거야.”
- ④ “서로 애정이 변함 없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 사랑은 신의의 문제일 수도 있겠어.”
- ⑤ “헤어진 뒤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경계하는 뜻도 있을 거야.”

[문제 3] (라)의 ㉠에 들어갈 사실로, 이 도령의 처지를 잘 드러낸 표현은? 252)

- ① 죽자 하니 청춘이요 살자 하니 고생이라.
- ② 말은 가자 네 굶을 치는데 임은 꼭 붙들고 아니 놓네.
- ③ 조자룡의 청총마 없으니 천리 먼 길 한양을 어이 가리.
- ④ 내가 이리 살지 말고 임 타신 말고뻘에 목을 매어 죽고지고.
- ⑤ 높다란 상상봉이 평지가 되거든 오시려오, 사해 넓은 물이 육지가 되거든 오시려오.

[문제 4] (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sup>253)</sup>

- ① 말이 달려가는 속도감이 잦은물이 장단으로 잘 표현된다.
- ② 사설의 운율과 잦은물이 장단이 어울려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 ③ 길을 재촉하는 이 도령의 심정이 경쾌한 잦은물이 장단과 조화를 이룬다.
- ④ 화자는 춘향의 시점으로 옮겨 가 이 도령이 떠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
- ⑤ 멀어져 가는 거리에 대응하는 이 도령의 모습이 비유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다.

[문제 5] (가)~(마)를 연극으로 공연할 때, 새로운 내용을 첨가한 것은? <sup>254)</sup>

- ① (가): 이 도령은 등장하면서 무대 한 편에 서고, 방자는 춘향을 찾아간다.
- ② (나): 무대 중앙에서는 이 도령과 춘향이 이별을 슬퍼하고, 무대 한쪽에서는 방자와 향단어도 이별을 아쉬워한다.
- ③ (다): 이 도령은 말을 타지 않으려는 몸짓을 두어 번 한 뒤 끌리듯이 말에 오른다.
- ④ (라): 춘향은 말을 탄 이 도령을 따라 두어 걸음 움직이면서 당부의 말을 한다.
- ⑤ (마): 이 도령은 무대의 대각선 방향으로 퇴장하면서 자주 뒤돌아보고, 춘향은 멀어져 가는 이 도령의 모습을 망연히 바라본다.

[문제 6] (나)에서 밑줄 친 부분의 '간장이 녹다'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은? <sup>255)</sup>

- |       |        |       |
|-------|--------|-------|
| ① 애꿎다 | ② 애끓다  | ③ 애끓다 |
| ④ 애타다 | ⑤ 애타지다 |       |

비문학 독서 1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① 정보 사회의 대표적인 기기인 텔레비전, 전화, 컴퓨터, 인공 위성은 서로 연결, 조합되어 어마어마한 정보 체제를 구성한다.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과 컴퓨터는 정보 사회를 특징화하는 기기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텔레비전은 우리를 개방하며, 컴퓨터는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즉, 텔레비전은 모두의 정보를 모두에게 개방하고, 컴퓨터는 단순 정신 노동에서 우리를 해방시킨다.

② 이것은 축복일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 폭넓은 해방과 개방은 위치 감각의 상실 또는 실재관(實在觀), 세계관의 계속적인 ㉠ **동요**를 낳을 수도 있다. 이 자체는 고통이다. 사람들은 자기 행동 방향의 거점을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으로 제약된, 또는 한계 규정된 위치에 잡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사회학, 심리학에서는 ‘역할’이라고 부른다. 일단, 위치 감각을 상실하는 것이 더 고차적인 새로운 위치 감각의 형성에 이어진다면 해방과 개방은 축복일 수도 있다.

③ 정보 사회를 축복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선 두 가지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개방 사회를 사는 지혜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고, 또 하나는 ㉡ **해방된** 정신적 자유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이냐 하는 문제다.

개방 사회라는 말은 사람들이 타고난 계급이나 계층에 얽매이지 않고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마음대로 진출할 수 있는 사회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모두의 정보를 모두에게 개방하고 있는 사회라는 또다른 차원의 의미가 부가된다. 모든 집단 관계는 어느 정도의 의식적, 무의식적인 정보의 통제를 통해서 그 ㉢ **역할**이 결정된다. 그것이 집단 사이의 신비이며, 신비는 외경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개방 사회에서는 모두의 정보를 공개, 전달함에 따라 지도자와 국민 사이, 어른과 아이들 사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신비와 외경의 베일이 없어진다. 전자 미디어 문화를 지속하는 한, 이 변질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 변질을 다 좋다고 할 수도 없으나, 반대로 다 나쁘다고 몰아칠 수도 없다. 문제는 개방으로 변질해 가는 새로운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역할들을 찾는 일이다.

④ 둘째는, 단순 정신 노동에서 해방된 자유를 좀더 인간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써야 하는 문제가 있다. 사람들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일을 찾아 나서야 한다. 컴퓨터가 흉내낼 수 없는 발산적 사고를 이용한 예술적 창작과 감상, 지적인 창의와 모험, 도덕적인 재지향(再指向)과 ㉣ **통찰**의 길을 가야 한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지식을 찾아 나가야 하며, 인간관, 사회관, 세계관을 새로운 상황과 정보에 적합하게 계속적으로 재구조(再鑄造)해 나가야 한다.

⑤ 역설적(逆說的)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정보 테크놀로지 시대가 될수록 인문 교육이 필수적인 것이 된다. 자동 장치로 가득한 전자 시대는 사람들을 기계 시대의 고역(苦役)에서 해방시켜 주는 대신, 사람들을 자아 실현과 사회 발전에 정신적 자원을 총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한다. 테크놀로지에 의한 해방은 지적 모험(知的冒險)과 예술적 탐구의 정열도 없고, 능력도 모자라는 인간에게는 도리어 허무감을 낳고 박탈감과 반항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보화 시대가 가져다 준 해방과 자유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⑥ 사람들은 수천 년 전, 떠돌아다니며 살던 유목 시절을 끝내고, 책상에 앉아 펜과 책으로 문명을 가꾸어 왔다. 이제, 정보 테크놀로지에 의해 인간은 다시 넓은 들판으로 떠돌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었다. 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 **개방되고**, 더 많이 해방되었기에 더 넓은 공간을 떠돌아다녀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의 운명처럼 사람들에게 좀더 창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셈이다.

**[문제 1] 필자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56)**

- ① 정보 사회가 시작되면서 인간은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 ② 정보 사회는 모든 정보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는 사회이다.
- ③ 정보의 공개와 전달은 집단 사이의 신비와 외경을 없애준다.
- ④ 정보 사회를 축복으로 맞이하려면 기존의 위치 감각을 유지해야 한다.
- ⑤ 정보 사회에서는 창조적 정신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문제 2]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뒤틀림과 유사한 것은? 257)**

- ① 평준화 정책에 관하여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나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 ② 과학 기술은 그 자체로서는 선도 악도 아니다. 인간들이 이용하기에 따라서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 ③ 대도시 주변의 그린벨트 해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설부른 결정이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 ④ 소규모 풍력 발전소를 많이 건설하는 것이 환경 문제를 야기하지 않고, 전력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 ⑤ 종교적 주장의 옳고 그름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명할 수는 없다. 이들 문제는 개인의 가치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문제 3] 각 문단의 주제와 성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258)**

- 1. 정보 기기의 효용 ..... ①  
[도입부, 논의의 시작]
- 2. 정보 사회의 양면성 ..... ②  
[논점 제시의 배경, 전제]
- 3. 해결해야 할 과제  
[논점 제시]
- 4. 개방 사회를 사는 지혜 ..... ③  
[과제의 구체화 1]
- 5. 정신적 자유의 활용  
[과제의 구체화 2]
- 6. 정보 사회의 해방과 자유 ..... ④  
[과제의 구체화 3]
- 7. 창조적 역할 담당의 필요성 ..... ⑤  
[논의의 요약, 강조, 마무리]

[문제 4] ㉠~㉣을 이용하여 짧은 글을 지었다. 바르지 않은 것은? 259)

- ① ㉠ - 실직의 공포 때문에 떨고 있는 직원들의 동요를 막는 일이 시급한 과제였다.
- ② ㉡ - 시험의 중압감에서 해방된 학생들로 거리가 넘쳐나고 있었다.
- ③ ㉢ - 우리 모두는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 ④ ㉣ - 동물의 움직임을 자세히 통찰하면, 동물의 행동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 ⑤ ㉤ - 성에 관한 왜곡된 정보가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개방되고 있다.

[문제 5] 다음은 어느 학생이 쓴 일기이다. 밑줄의 ㉠에서 강조하는 삶과 거리가 먼 것은? 260)

3월 1일 (금) 날씨 : 맑음

공휴일이라 늦잠을 잤다. ㉠ 3.1절 기념식 중계 방송을 보면서 조국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신 선열들을 생각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 선조들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며 우리 민족의 항일 독립 운동의 역사를 기술한 「독립 운동사」를 다시 읽었다. ㉢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분인 만해 한용운 선생이 떠올라, '님의 침묵'이라는 시도 읽었다.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오후에는 선조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기며, 옆 동네에 있는 양로원에 가서, 자원 봉사 활동을 하였다. 몸은 조금 피곤하였지만, 나의 조그만 노력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것을 알고 큰 보람을 느꼈다. ㉤ 밤에는 컴퓨터 타자 연습을 열심히 하였다. 유익하게 보낸 하루였다.

## 비문학 독서 2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전통 예술의 현대화나 민족 예술의 세계화라는 명제와 관련하여 흔히 사물놀이를 모범 사례로 든다. 전통의 풍물놀이(농악)를 무대 연주 음악으로 탈바꿈시킨 사물놀이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 예술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잡은 가운데 우리 전통 음악의 신명을 세계에 전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물놀이의 예술적 정체성 및 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나) 사물놀이의 옹호자들은 사물놀이가 풍물이나 무악(巫樂)과 같은 전통 음악의 어법을 창조적으로 계승했음을 강조한다. 기본 장단의 구성이나 ㉠ 느린 박자에서 빠른 박자로 전개되는 점층적 가속(加速)의 구성 등을 이어받는 한편, ㉡ ‘치고 달고 맺고 푸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극적 변화를 통하여 미적 감흥을 극대화하였다는 것이다. ㉢ 징·꽁꽁리의 쇠소리와 북·장구가 내는 가죽 소리의 절묘한 어울림을 통해 ‘음양(陰陽) 조화의 원리’를 구현했다고도 한다. 사물(四物)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한 결과이고 ‘음악’에 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성과다.

㉣ 춤과 발림,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열린 마당에서 벗어나 무대에서의 ‘앉은 공연’을 선택한 결단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현대적인 공연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놀이는 무대 공연물 관람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변신은 ㉤ 사물놀이와 현대 음악의 만남의 길을 활짝 열어 주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국내 피아니스트 및 대중 가수, 교향악단과의 협연은 물론 국외 음악인들과의 거듭된 협연을 통해 사물놀이는 그 음악성을 널리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물놀이와 협연했던 세계적인 재즈 그룹의 한 연주자는 이렇게 말한다. “완전함과 통일성을 갖춘 사물놀이의 음악을 들었을 때 클래식만을 고귀하게 여기는 유럽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느꼈다. ㉥ 서양의 소리와 동양의 소리의 만남을 통해 나는 형식과 전통을 뛰어넘어 많은 깨우침을 얻는다.”

(다) 그러나 문화계 일각에서는 사물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전통 풍물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쪽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사물놀이가 풍물놀이의 곳 정신을 잃었거나 또는 잃어 가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풍물놀이는 흔히 ‘풍물굿’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모두가 마당에서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춤·기예(技藝)와 더불어 신명 나는 소리를 펼쳐 내는 것이 본질적 특징인데, 사물놀이는 리듬악이라는 좁은 세계에 안착함으로써 풍물놀이 본래의 예술적 다양성과 생동성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사물놀이에 의해 풍물놀이가 대체되는 흐름은 우리 민족 예술의 정체성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사물놀이에 대한 우려는 그것이 창조적 발전을 거듭하지 못한 채 ㉦ 타성에 젖어 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제기된다. 많은 사물놀이 패가 새로 생겨났지만, 사물놀이의 창안자들이 애초에 이룩한 음악 어법이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 내지 못한 채 그 예술적 성과와 대중적 인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사물놀이가 민족 예술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기도 한다. 이런 맥락에서 비판자들은 혹시라도 사물놀이가 대중의 일시적인 기호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머지않아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문제 1] 윗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261)

- ①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에 비하여 역사가 짧다
- ②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그 음악적 뿌리가 같다.
- ③ 사물놀이는 국내외의 다양한 음악과 협연하였다.
- ④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와 달리 마당에서 움직이면서 한다.
- ⑤ 사물놀이의 영향으로 풍물놀이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

[문제 2] (나)의 '사물놀이의 옹호자'가 (다)의 '사물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반박할 때의 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62)

- ① 예술은 국경을 초월한다.
- ② 현대는 종합 예술의 시대다.
- ③ 대중 없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다.
- ④ 새로운 예술적 시도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 ⑤ 예술적 생동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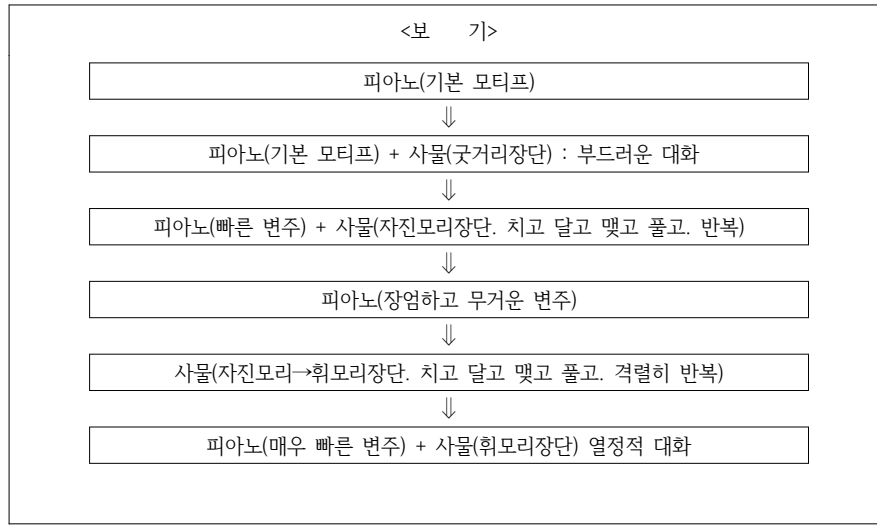
[문제 3] ㉠의 '음악 조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물놀이와 풍물놀이의 나아갈 길을 제시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63)

- ①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서양 음악과의 만남을 적극 시도해서 세계 무대로 진출해야 한다고 봐.
- ② 사물놀이와 풍물놀이가 각기 정체성을 살리는 가운데 서로 도와서 함께 발전해 나가면 좋겠어.
- ③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를 절충한 새로운 공연물을 만들어서 둘의 장점을 살리는 게 좋겠어.
- ④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의 성과를 받아들여 현대적인 무대 예술로 나아가야 해.
- ⑤ 사물놀이는 '마당'으로 돌아와 풍물놀이처럼 대동적 신명을 살려내야 해.

[문제 4] ㉡과 바꾸어 쓰기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264)

- |             |            |
|-------------|------------|
| ① 타성이 붙고    | ② 타성에 물들고  |
| ③ 타성이 생기고   | ④ 타성에 스며들고 |
| ⑤ 타성에 빠져 들고 |            |

[문제 5] <보기>는 '사물놀이와 재즈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의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 중,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없는 것은? <sup>265)</sup>



① ㉠

② ㉡

③ ㉢

④ ㉣

⑤ ㉥